

※※※ 알림글 ※※※

티스토리 블로거 “차삐라” 입니다.
K리그 클래식, K리그 챌린지를 중심으로
AFC챔피언스리그, 내셔널리그, 대표팀 기록,
J리그 소식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 **클릭**하면 블로그 이동

<http://chappira.tistory.com>

번역 중 오타,오역,의역 등이 있으니
반드시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원본은 J리그 홈페이지 또는
차삐라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J.LEAGUE™ NEWS



© J.LEAGUE PHOTOS

1993년 J리그 개막을 아는 三浦知良(좌)와 귀중한 의견교환 기회를 가진 무라이체어맨

무라이 J리그 체어맨 J클럽 방문

요코하마FC에서는 三浦知良 선수와도 의견교환. J리그 매력발신에 다시한번 의욕 표시

J리그의 무라이미즈루 체어맨은 올해 1월31일 취임이래, 리그전과 J클럽 방문등 전국에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3월28일에는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J2리그의 요코하마FC를 방문, 트레이닝등을 시찰. 클럽관계자등과 교류를 하며, 「카즈」 애칭으로 친숙한 三浦知良 선수와도 의견교환을 했다. 「축구를 위해서, 몸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은, 정말 프로라고 생각한다. 매우 자극을 받았다.」라며, 47살이 된 현재도 가장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 베테랑과 이야기한 감상을 말했다. 무라이 체어맨은 이용도 이어서, 각 클럽을 방문할 예정이다. (2페이지에 관련기사)

J.LEAGUE™ TOP PARTNERS

J.LEAGUE™ 300 YEAR VISION PARTNER 	J.LEAGUE™ FAIRPLAY PARTNER 	LEAGUE CUP SPONSOR 	SUPER CUP SPONSOR 	J.LEAGUE™ OFFICIAL EQUIPMENT PARTNER 	J.LEAGUE™ OFFICIAL BROADCASTING PARTNER 	SPORTS PROMOTION PARTNER 	J.LEAGUE™ OFFICIAL TICKETING PARTNER
J3 LEAGUE™ TITLE PARTNER 	J3 LEAGUE™ OFFICIAL PARTNERS 	J3 LEAGUE™ OFFICIAL PARTNERS 	J3 LEAGUE™ OFFICIAL BROADCASTING PARTNER 	SPORTS PROMOTION PARTNER 			



村井 満 X 三浦知良

J리그 চে어맨

「전력으로, 성실히 하는 것이
일본 브랜드, 일본축구」

선수(요코하마FC)

「일본이 선두에 서서 모범이 되는
리그를 만들어 간다면」

회기애하게 이야기한 村井체어맨(좌)과 三浦선수. J리그, 일본축구를 매력넘치게 하고싶다는 마음은 같다

요코하마FC 클럽하우스를 방문한 J리그 村井 満 체어맨은 팀 트레이닝 개시전, 선수들에게 「축구의 즐거움과 기쁨을 한번 더, 제 마음에 담고싶어 왔습니다」라고 인사. 연습종료후 三浦知良 선수와 의견교환을 했다.



요코하마FC 훈련을 「밝은 분위기였다」라는 체어맨

村井 「체어맨에 취임한후 짧은 기간에, 서포터와 클럽, 서포터와 선수들 거리를 생각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즈씨는 그런 J리그 중심에서 관계를 쪽 봐왔기 때문에, 뭔가 힌트가 되는 걸 알려줬으면 합니다」

三浦 「클럽은 서포터가 중요한 존재라 하며, 서포터도 클럽에게 더 가까이서 지지하고싶다는 마음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경계선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느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 서포터가 없으면 축구는 절대로 흥이나지 않으며, 선수가 없으면 시합이 안됩니다. 지금은 FIFA(국제축구연맹)등이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일본이 선두에 서서 모범이 되는 리그를 만들어야하며, J리그는 세계적으로도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직화되고 있고, 선수도 안심하며 뛸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아이들부터 어른, 여성도 보러올수 있는 훌륭한 리그가 되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村井 「J리그가 개막후 20년이상이 경과해, 그간 일부 서포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지만, 다시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가족 모두가 즐겁게 보던지, 여성도 노인도 외국인도 다양한 사람이 오는게 좋지않냐는 경기장으로 다시한번 돌아갔으면 합니다.」

三浦 「이번, 무관중시험이라는 마이너스면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경험한 걸 헛되게해서는 안된다. 선수도 서포터의 응원으로 힘이 난다는 걸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도 한숨도 없는 곳에서 하면, 「이게 좋은 플레이였을까. 지금까지는 반응이 있었는데」라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따라 선수가 활기가 붙는 것이 정말 있습니까요.」

村井 「이런건 정말 마지막이 됐으면한다. 실은 저는, 이전에 서포터측 존재했습니다. 카즈씨의 일본대표 시합과 J리그도 개막때부터 보고, 그때는 축구를 하는 기쁨, 뛸 수 있는 기쁨이 피치에 넘쳤다고 느꼈다. 서포터도 축구를 볼수 있다는 기쁨과 고마움에 넘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점으로 다시한번 그런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축구란 재밌죠」라는 걸 전하고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카즈씨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三浦 「체어맨이 오셔서 선수들의 의욕도 달랐습니다. J2 클럽에게도 일부로 와서, 연습도 본다는 것은 선수에게 정말 고마운일입니다. 선수는 피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합에서 힘을 쏟습니다.」

村井 「취임하고 바로, 2014 J리그 쿼터오프시즌 전에 한 감독회의에서 사합중료 휘슬이 불릴때까지 전력으로 플레이하고, 리스타트를 빠르게, 선수교대

를 빨리라는 세계의 약속을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즈씨 영상을 사용하고, 참고했습니다. 요코하마FC가 3-1로 이기고 있는 장면에서 교체하는 카즈씨가 달려나가는 장면입니다.」

三浦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벌기는 할수없게 되네요. 전력으로 할것입니다. 전력으로 해도, 승부조작(같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된건지」라는 분위기가 된다. 사실이 없어도」(주)

村井 「이번은 절저히 「일본에서는 승부조작은 할수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위해서, 문제는 없었다고 일부러 알렸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두번다시 소문으로도 하고싶지않다」라고 하고싶다.」

三浦 「브라질 선수가 자주 말합니다. 「일본 선수는 돈을 위해서만 뛰고있지 않다. 수입이 줄어도 자신에게 좋은 클럽에 가고싶어한다라며, 브라질에서는 늘 수입이 오르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무심코 돈에 끌린다」라며, 물론 생활은 소중하지만, 일본인 선수에게는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강한 멘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선수도 그런 걸 알려주었습니다.」

村井 「전력으로, 성실히 하는 것이 일본 브랜드, 일본축구라는 것을 앞으로도 어필하고싶습니다.」



체어맨은 선수들과 점심을 같이했다.

(주)일본축구협회와 J리그는 3월10일에 FIFA EWS사로부터 J리그 시합에 대한 내기에 「작은 이상치」가 보였다는 스포츠도박시장 동향 감시 리포트를 수신. J리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 부정에 대한 관련없음을 판정했다. 그때 일부 보도로 「승부조작」 말이 사용됐다.

「3개의 페어플레이 선언」에 합의와 추진



회견장에서 페어플레이 추진에 결의를 표명한 村井 徹 맨

J리그와 J클럽은 「피치위의 페어플레이」 「파이낸셜페어플레이」 「소셜페어플레이」라는 「3개의 페어플레이」가 J리그 및 J클럽을 발전시킬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에 합의하며, 이걸 예의주신 한다. 4월22일에 열린 J리그 이사회후에 기자회견 한 J리그의 村井 滿 맨이

스스로 결의표명을 말했다. 이 중 「소셜페어플레이」에 대해서는 「3개의 페어플레이」중에서 가장 근저에 있으며, J리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늘 의식해 노력해야할 방침. J리그는 이 선언에 관한 중래의 노력에 더해, 특히 「소셜페어플레이」침투를 위해, 연수제도의 중실과 조직체제의 변화등, 이후 구체적인 노력을 강화한다. 더욱이 「차별근절」에 관해, 다시한번 村井 徹 맨이 J리그의 강한 의지를 넓혀 사회에 대해 표명함과 함께. 패너서포터에게도 메시지를 발신한다. 이후 일본축구협회(JFA)와도 협조해, 그 합의를 범위를 넓혀간다. J리그는 「3개의 페어플레이 선언」아래, 더욱 매력있는 축구실현을 목표로한다.

1. 3개의 페어플레이 선언

우리들 J리그와 J클럽은 「피치위의 페어플레이」 「파이낸셜페어플레이」 「소셜페어플레이」라는 「3개의 페어플레이」가 J리그 및 J클럽을 발전시킬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에 합의하며, 이걸 예의 주신다.

- 피치위의 페어플레이
 - 규정을 지킨다.
 - 심판과 상대에 경의를 표한다
-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 「클럽라이선스제도」에 의한 클럽경영권 전화 (2012년~)
- 소셜 페어플레이
 - 반사회적 노력과 관계 차단 「폭력단동 배제선언」(2012년2월~)
 - 차별 근절 「체어맨 메시지」
 - J리그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کمپلا이언스 강화)

2. 소셜 페어플레이 침투에 관한 구체적 노력

소셜 페어플레이 침투에는 「전원」 「정기적으로」 「반복」 의하는 것이 중요. J리그가 사회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부터 조속히 착수한다.

[J리그]

(1) 소셜페어플레이 철저에 관한 연수시스템 구축
 ① J리그 전체가 통일감이 이쪽, 지속성있는 구조를 만든다 (연수 의무화. 클럽라이선스 교부 규칙개정)

- ② 연수교재로서 반포할 수 있는 통로 개척 (현재 통로를 재편)
- (2) 연수 조기 실시 (가능한 것부터 당장 실시한다.)
- (3) 소셜페어플레이를 접해하는 사안(소위 유사)에 대한 조직체제 유지보수와 재편

[J클럽]

- (1) 「compliance officer」 선임 (중래 compliance 담당을 발전적으로 고친다)
- (2) 클럽에 소속된 전원을 대상으로 철저 철저한 소셜 페어플레이에 관한 연수수강 개시
- (3) 이른바 유사사행이 일어났을 때의 대상 조직을 클럽내에 설치

[이후 구체적 활동안]

- (1) 「승부조작 대상 세미나」 재 실시 (4월18일, 선수계약담당자회의)(실시완료)
 → 세미나 내용은 줄석자부터 각클럽에 피드백
 → 내부통보장구 보급, 침투도 계획
- (2) 「부당요구방지책임자강습」
 → 반사회적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요구, 압력에 대한 책임자를 경찰이 인정하는 제도
 → 각도도부현 경찰로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클럽과 지역경찰이 연계
- (3) 「인권연수」
 → 각도도부현 법무국이 주장하는 인권에 관한 연수
- (4) compliance 연수
 → J리그가 제휴하는 컨설턴트에 의뢰예정

村井 滿 맨의 메시지

「차별근절을 위해 ~소셜페어플레이~」
 우리 J리그는 모든 차별을 근절합니다.

1. 우리는 공정하며 개방, 안심 및 안전하며 누구나 즐길수 있는 경기장 만들기를 추진합니다.
2. 우리는 모든 compliance risk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며, 대응력을 높이기위한 대책을 계속 실시합니다.
3. 모든 노력은, J리그를 사랑하는 모든 팬, 서포터와 함께 실천해갑니다.
 ※ 모든 사항은 J리그규약, 규정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J리그를 사랑하는 팬, 서포터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는 경기장 내외에서 늘 J클럽과 선수들의 응원, 서포트를 통해 J리그를 복돋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안심 및 안전하고 쾌적, 그리고 연령, 성별, 국적 등의 구별없이 누구나가 꿈을 꾸고, 즐길 수 있는 J리그이기 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근거해 J리그 경기장 내외에서 게시물등의 메시지는 그걸 접하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공유할수 있게 합니다.
 J리그를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개방적인 리그」가 되도록 합니다.
 ※ 상세한 것은 J리그 공식 홈페이지 「시합실시시에 안전이념」 및 「관전매너」를 봐주세요

「시합운영에 관한 안전 관련 규정」 개정

J리그는 J클럽과 함께 「시합실시 시에 관한 안전은 궁극 관객서비스다」라는 슬로건아래, 「시합실시 시에 관한 J리그 안전이념」을 내걸고,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확립할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클럽의 운영담당

과 경비회사등의 유식자에 의한 연구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더나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구축을 위해 검토한 결과, 차별적 행위에 대한 대응에 대해, 규정을 일부 개정(굵은글자)하고, 널리 주지하게 됐다. (추가, 변경 부분만 발췌)

■ J리그 통일금지사항

- 불꽃놀이, 폭죽, 발연통, 가스혼 소유금지
- 병, 캔류 소유금지
- 필드에 물건 던지기 금지
- 필드에 뛰어내리기 금지
- 폭력행위 금지

[추가]

- 차별적, 모욕적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인종금지
- ※ 해당인등이 상기에 해당하느지는 주관관이 판단

■ J리그 공동관전 매너&규정

지켰으면하는 것	구체적내용
응원	[변경전] ■ 사람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곱개와 현수막을 거는 것은 그만두세요.
매너	[변경후] ■ 차별적, 모욕적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언과 행위는 반드시 그만두세요.

■ 시합운영관리규정

J리그 및 J리그 51클럽은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에서 시합관전을 제공하기위해, 시합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시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전에 대해서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따라 응원을 바라며, 시합운영관리규정을 준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당행위가 시합운영관리규정에 저촉되는지 여태해서는 J리그 및 각 클럽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각클럽에 따라 주관시합의 시합운영관리 규정(소유금지물 금지, 현수막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입장시 각 클럽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십시오

제4조 (소유금지물)

시설에 입장하려고 하거나 또는 입장한 사람은 운영, 안전책임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물건을 시설에 갖고들어 갈수 없다.

3. 아래에 해당하는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판단한 개시판, 입관판, 현수막, 기, 플래카드, 제권, 문서, 도면, 인쇄물등

- ①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주의, 주장 또는 관념을 표시하고, 또는 연상시키는 것
- ② 차별적, 모욕적인 내용, 표현을 포함한 것
- ③ 선수와 팀을 응원 또는 고무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
- ④ 대회 운영에 지장을 미칠 위험이 있는 것

제5조 (금지행위)

시설에 입장하려 하거나 또는 입장한 사람은 운영, 안전책임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시설에서도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3.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 또는 출신 등에 관한 차별적 또는 굴욕적인 발언 또는 행위를 하는 것

14. 상기 각호의, 공서양속에 반한 발언 또는 행위를 하는 것

제9호 (입장 거부, 퇴장명령, 물건 몰수)

2.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전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입은 손해 (해당자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클럽에 부과된 제재에 기인한 클럽이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TOPICS

トピックス (3月24日~4月23日)

※各項目の詳細については、Jリーグ公式ホームページ
(http://www.j-league.or.jp)を参照

「아이템직업탐험대」에 협력

J리그 톱파트너 주식회사 아이템이 개최하고, J리그가 2007년부터 협력을 계속하고 있는 「아이템직업탐험대」가 3월27일에 도쿄, 4월4일에 오사카에서 열렸다. J리그는 이클란, 세레소오사카는 오사카개최에 협력했다.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J리그와 축구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곳을 방문, 견학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도쿄에서는 J리그 OB선수인 北澤豪씨, 오사카에서는 森島寛晃씨 (C오사카대사)가 안내역이 됐다.

당일 모습은 아이템이 발행 구인 프리페이지 「삼아이템」에 게재예정 (도쿄는 5월5일 발행호, 오사카는 5월12일 발행호)



J리그 엔터프라이즈에서 J클럽과 일본대표 관련상품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도쿄)



프로축구선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는 柿谷曜一朗(중앙)과 山口蛍(우) 선수. 왼쪽은 森島대사(오사카)

2014 J리그 3월 월간베스트골/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발표

매월 리그전에서 가장 멋진 골을 시상하는 「월간베스트골」에 FW佐藤寿人「산프레체히로시마」가 J1 2R (3월8일) 카와사키프론틀레전에서 57분에 넣은 득점이 뽑혔다. 이 골은 연간 가장 멋진 골에 주어지는 「최우수골상」의 후보골이 되며 「최우수골상」은 시즌후에 열리는 J리그어워즈에서 수상한다. 매월 리그전 (J1,J2)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를 시상하는 「코카콜라 J리그 월간 MVP」 3월 수상선수에는 J1은 DF塩谷司 (히로시마) J2는 MF永木亮太 (쇼난벨마레)다. 두 선수에게는 각각 30만엔, 20만엔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발표 4월22일에는 JFA하우스에서 심사위원의 한사람인 宮本恒靖 J리그 특임이사가 영상을 교부하면서 해설을 더했다.



宮本씨는 佐藤의 득점을 「스트라이커다운 골」이라고 평했다



영상을 보면서 해설하는 宮本씨

팀에 공헌도가 높은塩谷는 「자신을 갖고 플레이하고 다」는 宮本씨

村井満 J리그체어맨 선수회 대표와 의견교환 쥬시코쿠 J클럽 정보간담회 출석

J리그 村井満 체어맨은 1월 취임이후, J리그 집무와 시합시찰, 클럽방문등, 정렬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4월7일에는 일반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선수회의 佐藤寿人회장 (산프레체히로시마)등이 J리그를 방문해, 의견교환 기회를 가졌다. 선수의 세컨드커리어, 서포터와 관계, 페어플레이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村井 체어맨은 「앞으로도 점점 의견교환하고싶다」라고 서로 의지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9일은 쥬시코쿠의 J클럽과 정보간담회에 출석하기 위해, 에히메현 마츠야마시를 방문. 각클럽의 회장과 의견을 나누는 등. 中村時広 현지사와 野志克仁 시장도 방문했다.



村井체어맨(왼쪽에서 4번째)을 방문한 佐藤(오른쪽에서 4번째)등 선수회 대표



「2014 J리그 U-16 챌린지」를 개최

J리그는 3월23일부터 4월6일에 이바라키현, 시즈오카현, 오사부3곳에서 「2014 J리그 U-16 챌린지리그」를 개최했다. J클럽에 소속된 16세이하 선수가 대상이며, 이번은 J1,J2 전체 40클럽에 더해 J3의 6클럽도 참가했다. 이번부터 시합은 모두 35분 하프르 통일대, 그룹내 풀리그전 후에 순위 결정전등 형식으로 실시. MVP 선수, 시상도 열렸다. 이 대회는 톱레벨 선수육성에 중요한 연령에 대한 시합 출장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인 육성을 함과 동시에, 리그화에 대한 검토 기회도 된다.

「2014 J리그 U-16 챌린지리그 성적」

- 【그룹1】 時之栖スポーツセンター(静岡) 3월23~25일
1位:熊本, 2位:湘南, 3位:愛媛, 4位:横浜FC, 5位:富山, 6位:山形, 7位:岡山, 8位:YS横浜, 9位:川崎F, 10位:相模原 [MVP]大友龍聖(熊本)
- 【그룹2】 卜佐の郷運動公園多目的球技場(茨城) 3월24~26일
1位:大宮, 2位:鹿島, 3位:札幌, 4位:水戸, 5位:徳島, 6位:群馬 [MVP]山田 隼(大宮)
- 【그룹3】 時之栖スポーツセンター(静岡) 3월30일~4월1일
A그룹 1位:横浜FM, 2位:清水, 3位:松本, 4位:甲府, 5位:長崎, 6位:浦和
B그룹 1位:名古屋, 2位:磐田, 3位:F東京, 4位:新潟, 5位:鳥栖, 6位:町田 [MVP]北野晴矢(名古屋)
- 【그룹4】 J-GREEN堺(大阪) 4월1~3일
1位:G大阪, 2位:福岡, 3位:東京V, 4位:京都, 5位:大分, 6位:神戸, 7位:広島, 8位:千葉, 9位:柏, 10位:長野 [MVP]松本歩夢(G大阪)
- 【그룹5】 J-GREEN堺(大阪) 4월4~6일
1位:仙台, 2位:C大阪, 3位:鳥取, 4位:北九州, 5位:岐阜, 6位:栃木, 7位:秋田, 8位:讃岐 [MVP]松岡大智(C大阪)

실행위원선임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아래 클럽의 실행 위원변경을 승인했다.

실행위원		
클럽명	변경전	변경후
베갈타 센다이	白幡 洋一 株式会社ベガルタ仙台 代表取締役社長	西川 善久(にしかわ よしひさ) 株式会社ベガルタ仙台 代表取締役社長 ※4月25日付で同職に就任
FC기후	藤田 大二郎 株式会社岐阜フットボールクラブ 代表取締役社長	恩田 聖敬(おんだ さとし) 株式会社岐阜フットボールクラブ 代表取締役社長 ※4月24日付で同職に就任
V파렌 나가사키	宮田 伴之 株式会社V・ファーレン長崎 代表取締役社長	岩本 文昭(いわた ふみあき) 株式会社V・ファーレン長崎 代表取締役専務

참여선임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4년 4월25일부터 베갈타센다이의 실행위원을 퇴임하는 白幡洋一을 참여로 선임했다.

참여	
성명	실행위원재임기간
白幡 洋一	2011년2월~14년4월(在任期間3年2ヵ月)

미야기현 종합운동공원미야기스타디움 명칭변경

베갈타센다이가 홈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야기현 종합운동공원미야기스타디움」은 미야기현과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미야기현본부와 시설명명권계약 체결에 따라 아래처럼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변경			
	일본어표기	영어표기	약칭(일)
현재	宮城スタジアム	Miyagi Stadium	宮城ス
변경후	ひとめぼれスタジアム宮城	Hitomebore Stadium MIYAGI	ひとめS

■기간:2014년 4월1일~17년3월31일 (3년간)

■비고:2014시즌공식시합 사용예정은 없음

J리그오피셜 응원CD

「NEXT STAGE~ROAD TO 100~」 발표

J리그에서는 과거에 다양한 형태로 「축구」와 제휴한 악곡과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수록한 J리그 오피셜 응원CD 「NEXT STAGE~ROAD TO 100~」(발매, 판매처:에이벡스마케팅주식회사)를 제작, 5월14일(수)에 발매한다(가격;2000엔,세금별도). 2014 J리그오피셜 응원가인 「Forever Young」(CREAM), 「승부곡-J.LEAGUE Official ver.-」(GAKU-MC)등이 수록되어 있다.



커리어자인 지원 프로그램 2014년도 「J리그판 [세상]科」 facilitator양성강좌 개강

J리그는 2010년도부터 J리그 인재육성활동에 대한 선수교육 노력으로서, 문부과학성위임사업인 「J리그판 [세상]科」(정식명칭:J리그를 네마로, 경기자로서 커리어를 생각하는 「커리어 디자인 서포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6~12월(예정)에 JFA하우스와 대상클럽의 클럽하우스에서 프로그램 facilitator(진행역) 육성을 목적으로한 강좌를 개설해, 각 클럽에서 자주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체제구축을 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아카데미코치에 대한 연수 실시전개를 계획한다.

제1회 Next generation 매치 지바 2014를 후원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일반사단법인 松田直樹메모리얼이 주최하는 「제1회 Next generation」을 후원하는 것을 결정했다. 시합은 2014년7월6일(일) 후쿠다전자아리나에서 개최. 제프유나이티드 OB와 지바현 출신 전 J리그선수를 중심으로 한 CHIBA DREAMS와 고 松田直樹와 인연있는 전 일본대표를 중심으로 한 NAOKI FRIENDS가 대전한다. 또 시합과 AED강습회 실시도 예정되었다.

쿄토상가F.C.연고지 추가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교토상가F.C.가 연고지를 추가해, 종래 京都市,宇治市,城陽市,向日市,長岡京市,京田辺市,木津川에 더해, 亀岡시를 2014년4월22일부터 새롭게 연고지로 하는걸 승인했다.

제64회 “사회를 밝게하는 운동”에 협력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범무성이 주장하는 제 64회 “사회를 밝게하는 운동”에 협력하는 걸 결정했다. 2014년 7월1일(화)~31일(목) 강조월간에 공식시합 개최시의 고지활동에 협력한다.

(독)일본스포츠진흥센터 「SAYONARA국립경기장 프로젝트」가 2014 J1,J2리그전을 후원

J리그는 4월22일에 개최한 이사회에서 독립행정법인 일본스포츠진흥센터인 「SAYONARA국립경기장 프로젝트」에 찬동하며, 국립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아래 4시합에서 센터 후원이 결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센터가 반세기간, 스포츠 성지로서 걸어온 현재 국립경기장의 역사에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시하고 있다. 아래 4시합에서는 입장객 전원에게 「SAYONARA국립경기장 핸드타월」 선물등을 실시한다.

SAYONARA국립경기장 프로젝트 대상시합			
2014년 4월13일(일)※실시종료	2014년5월3일(토)		
J2 7R 토쿄V vs 오카야마	J2 11R 토쿄V vs 기후		
2014년 4월29일(화)※실시종료	2014년5월6일(화)		
J1 10R F토쿄 vs 나고야	J1 12R 코후 vs 우라와		

AFC챔피언스리그 2014

일본세는 3팀이 그룹스테이지돌파



AFC챔피언스리그(ACL)2014는 4월22,23일에 그룹스테이지가 종료. 일본세는 카와사키프론틀레,세레소오사카,산프레체히로시마가 각각 그룹에서 2위가 돼, 16강진출을 이뤘다. 녹아웃스테이지 막을 여는 16강은 1차전이 5월6일(화),7일(수) 2차전이 13일(화),14일(수)에 열린다.

그룹스테이지 최종전에서 3팀은 모두 승리해 돌파했다. 그룹H의 카와사미F는 울산현대(한국)에 3-1로 쾌승. E의 C오사카는 산둥루닝(중국)에 2-1 역선승. F의 히로시마도 센트럴코스트마리너스(호주)에 1-0으로 이겼다. 요코하마F마리노스는 작년 ACL우승 광저우헝다(중국)에 1-2 석패로 탈락했다. 16강 조합은 카와사키F vs FC서울(한국), C오사카 vs 광저우헝다, 히로시마 vs 웨스턴시드니원더러스(호주)



울산현대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카와사키F 小林悠

경기장 현상은 새로운 스테이지로

~지역의 핵이 되는 경기장~

경기장은 경기장에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공간, 클럽 수익을 낚는 자원으로, 시대를 쫓는 역할을 늘리고 있다. 더욱이 경기장은 도시의 집객장치 「도시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진화해, 유럽에서는 지역의 재개발의 핵이 되는 경기장도 나타나고 있다. J리그가 2008년에 「유럽의 축구경기장 사업구조조사」를 한후로부터 6년이 흘러, 국내에서도 몇몇 지역에서는 경기장 신설과 대규모 개수가 구체화되는 등, 이상적 축구경기장 준비를 향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클럽과 경기장이 지역에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근년 신설, 개수되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시찰했다.

■참가자

(회장)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フットボール統括本部長	窪田 慎二
独立行政法人 日本スポーツ振興センター スポーツ振興事業部 助成課	鈴木 友喜
鹿島アントラーズ 事業部 スタジアム事業グループ長	箕輪 公成
大宮アルディージャ 事業本部ファンサービスグループリーダー	小島 謙介
大宮アルディージャ後援会 理事長	染谷 伊久夫
清水エスパルス 営業企画部部長 運営チームリーダー	森谷 理
フジアーノ岡山 常務取締役	小川 雅洋
サンフレッチェ広島 企画広報部長	森盛 豊一郎
広島サッカー協会 常務理事	先本 賢司
株式会社 Jリーグメディアプロモーション コンテンツ企画部	高橋 理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競技・運営部マネージャー	佐藤 仁司
公益社団法人 日本プロサッカーリーグ 総務部アシスタントチーフ	伊藤 輝

※鹿島アントラーズは県立カシマサッカースタジアムの指定管理者

[알림] J리그 공식홈페이지에서 5월상순부터 「J리그유럽경기장 시찰 2014」에 대해 동영상 리포트를 게시예정



4개 스탠드 모두, 1층과 2층 사이에 비즈니스라운지를 갖추고 있다.(에스파뇰/스페인)



외벽이 개막식을 위해, 천연잔디 육성을 위한 통풍이 확보되고 있다.(바젤/스위스)



경기장 바로앞이 Tram역으로 되어있고, 병설 쇼핑 센터 이용에도 편리하다(베른/스위스)



100M 길이의 비즈니스라운지. 지역기업이 피치를 이 벤트로 이용해, 이후 회사가 시작된다.(루체른/스위스)

시작하며

2008년에 J리그가 「유럽의 축구경기장 사업구조조사」를 한후로부터 6년이 흘러, 국내에서도 이상적인 축구경기장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10년10월 「스타디움프로젝트 유럽시찰」에 참가한 토치기SC, 카와사키 프론타레, 감바오사카, 기라반츠키타큐슈의 홈경기장에서는 모두 신설과 대규모개수가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2월, 새롭게 구상을 갖는 클럽과 함께 J리그로서 3번째 유럽시찰을 실시했다. 목적을 공유하고, 홈경기장 장래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J리그 유럽경기장 시찰 2014」

플커버의 지붕을 시작으로하는 쾌적한 관전호나경은 당연. 각각의 경기장은 ① 접근좋은 입지를 살린 다기능복합형 ② 변형가능한 라운지를 갖춰, 시험일 이외에도 유효활용하고 있는 수익성 높은 365일 가동형 ③클럽 전통을 이어받은 박물관, 경기장 ④연고지 인구가 적어도 행정과 연대해 집객에 노력, 시티세일즈 일조를 담당하는 작은 도시의 간판 경기장 등 특성을 빛내고 있었다.

접근좋은 입지를 살린 다기능복합형

투어 첫음은 스페인. RCD에스파뇰의 경기장을 방문했다. FC바르셀로나라는 거대 클럽이 있는 지역으로 클럽이 주력한 경기장은 4개의 스탠드 전부가 1층과 2층 사이에 비즈니스라운지를 갖춘 사업성 높은 구조. 가장 가까운 역부터 도보 6분, 그 외 3개의 역에서도 13분 도보권, 경기장 뒤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있고, 모든 수단에서 접근가능한 입지 좋은 곳에 있다. 앞에는 시운영 그라운드, 뒤에는 시네마콤플렉스가 있고, 경기장이 이 공간 전체의 재개발의 핵이 됐다.

이전까지 지붕없는 육상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했지만, 09년에 약4만명 축구경기장을 9천만유로 (121억5천만엔)에 건설해 이전. 「성원이 지붕에 울리며, 이전 환경과 비교해 날이 새고, 태양이 내리찍는 낮으로 변하는 기분이다.」 「클럽간부」

365일 가동형 경기장

다기능복합형 경기장이 많은 스위스에서는 바젤, 베른, 루체른 3도시에 있는 시내 경기장으로, 시험이 없는 날도 사람들이 찾는 환경과, 예코대책을 시찰했다. 바젤

에는 고령자용 주거 107호, 베른에는 태양광 에너지 복합센터와 오피스가 병설돼, 모두 내부에 쇼핑센터가 있다. 바젤은 올해부터 클럽이 경기장 이용관리를 맡아, 쇼핑센터 테넨트로도 클럽 수입원이 됐다.

루체른은 경기장 부지내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아파트2동, 슈퍼마켓이 있다. 모두 경기장도 넓고 다양한 라운지를 몇 개나 갖춰, 시험일 전후에도 회의나 파티, 이벤트등으로 풀가동하고 있다. 스위스에서 축구복권 조성제도가 있어, 베른처럼 민간시설에서도 조성을 받고있

■참가자 코멘트

오미야아리다자 小島陽介
매우 자극적이었다. 클럽과 도시가 일체가 돼 한 노력과 정열의 결과가 경기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마인즈군부가 「경기장은 emotional poor가 되어서 안된다」라고 말하듯이 「극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기장은 있는 것만을 시간이 흘러가는 걸 잊었다. 우선은 지역에 뿌리내린 작은 활동을 정히 행하며, 「J리그 백년구상」 아래, 성실한 노력을 거듭해가는 것이 필수라고 느꼈다.

산프레체히로시마 森脇豊一郎

국제평화도시의 히로시마이기에 스포츠를 통한 평화 메시지를 보낼수 있다. 그러기위해서라도 도시의 집객장치로서 국내외로부터 365일 사람들이 모여, 연고지의 누군가가 「우리집」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러기위해서는 좋은 접근성은 가장 중요하다. 도내 중심시까지 에 복합형 경기장을 건설하는 구상이 있는 한, 우선 장소 결정과 컨셉트 숙성을 서두르고싶다.

파지아노오카야마 小川雅洋

방문국 4개국 중 스페인,잉글랜드,독일 클럽은 방영권수입의 비율이 높고, 세계에 향해 유명해 질수 있지만, 지역 서포터에게는 금요일과 일요일의 시험을 받아들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입장자수도 부진하다. 한편, 스위스의 3클럽에서는 지역이 가진 경기장 건설의 방향성에 대해 참고가 됐다. 경기장 수입은 연간 축구외의 흥행수입비율이 높다. 이후 경기장 신설은 중심 시가지에 건설하며, 고령자 주택, 쇼핑몰, 오피스, 학교, 권벤션 대용기능등을 갖춰, 축구를 하는 곳만이 아니라, 복합시설로서 사람들이 모여, 북적하고, 주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이런 생각으로 계획을 진행해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여정과 시찰지(나라별) 파란부분은 시찰만,청취없음

국	도시	팀명	홈구장	관중수	연도
2/8(土)	스페인	코르도바/데 리오레가드	스타ジアム 蔵賢場 RCDE스파르타	40,500	2009/8/2
2/9(日)		바르셀로나	스타ジアム 坎普・ノウ	—	—
2/10(月)		바르셀	스타ジアム 坎普・ノウ・バルク	38,512	2001/3/15
2/11(火)	스위스	베른	스타ジアム 스타디움・스위스, 프랑크푸르트, 베른	32,000	2005/7/30
2/12(水)		루체른	스타ジアム 스위스슈홀리 Arena	17,000	2011/7/31
2/13(목)	잉글랜드	더비	스타ジアム 아이브로・스타ジアム	33,010	1997/7/18
		스트롱・캐탈린	스타ジアム 프리타니아・스타ジアム	27,740	1997/9/30
		버밍엄	스타ジアム ヴェイク・パーク	42,682	1897年
2/14(金)	독일	마이징	스타ジアム 코파스・아레나 試合観戦	34,000	2011/7/3
2/15(土)		진스하임	스타ジアム 魏ニ・ネッカー・아레나 試合観戦	30,150	2009/1/24



의자,소파,카운터와 변형이 많은 비즈니스라운지(마인츠/독일)



매점 지불은 전용카드. 광장에는 카드판매, 지불대용 스텝플을 배치(호펜하임/독일)

다. 경기장 시설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클럽 공공성 뒷받침이 돼, 조성 대상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클럽 전통을 이어받은 박물관,경기장

잉글랜드에서는 전통있는 축구경기장의 독특한 분위기,임장감을 체험. 클럽역사를 소중히 남긴 경기장을 관찰하고, 시합이 없는 날도 활용해 비즈니스로 결부 짓고 있는 모습을 들었다. 스톡과 더비는 1997년에 리그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기장을 신설. 더비는 역 동쪽 1킬로미터 장승로 이전해, 경기장은 스타벅스커피와 샌드위치 체인점을 병설. 역 가까이 국도가 접한 입지로부터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남장소가 됐다. 라운지 대여와 국도측의 벽면 광고판매도 클럽 수입원이 되고, 새 경기장을 활용한 팬 서비스에 의한 젊은층 팬의 개척도 하는 등, 경기장이 고핵확대의 한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톡은 건설시 명명권료와 풋볼트러스트(정부,축구복권 및 풋볼리그공동의 모급)로부터 조성금이 활동되고 있다. 두곳 모두 경기장도 신설에 의해, 안전하고 쾌적해졌을 뿐만아니라, 경기장 자체가 클럽 역사를 아로새긴 박물관처럼 다시 태어났다. 스톡은 그다지 접근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장 이전예의한 평균 입장객수는 전년대비 118.3%에

머물렀지만, 더비는 162.7%로 뛰어올랐다.

시티세일즈를 노리는 작은 도시의 간판 경기장

투어 마지막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다고하는 독일 분대스리가를 3만명 규모의 경기장에서 관전. 마인츠에서는 경기장 접대를, 호펜하임에서는 일반석의 쾌적서를 체험했다. 모두 프랑크푸르트에 가까운 소도시다.

마인츠에서는 시운영의 경기장. 홈클럽의 엠블럼을 스탠드와 외벽등에 곳곳에 게시하며 「무원가가 일어날 기대감, 팀 이미지와 합치된 디자인, 모던스타디움」이라는 컨셉트를 실현. 늘 3만명(시 인구의 약 7분의 1)을 넘는 입장객을 모아, 소속된 岡崎慎司가 「서포터와 일체감을 느낀다」라고 평하는 경기장은, 팀에게 힘을 주며, 1부승격, 정착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클럽은 시에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만, 네이밍은 클럽수입이 되고 있다.

호펜하임 경기장은 인구 약3만4천명의 연고지(진스하이시)에서 3만명 수용능력을 가지며, 평균입장자수는 2만3천명을 넘는다. 경기장은 클럽의 후원자가 건설했지만, 회원수는 약5700명의 중합스포츠클럽이라는 기반아래, 착실한 보급활동을 하며, 주변 76도시의 시 문장을 경기장에 내걸며 인근 지역에서도 응원하러 오게하는 계획을 만든 결과, 팬을 늘리

며, 새 경기장에 걸맞는 톱클럽으로 성장. 경기장은 2011년 FIFA여자월드컵 경기장으로도 뽑혔다.

모두다 세계굴지의 리그로 정착, 국제대회 유치성공등, 경기장의 신설을 계기로, 대도시에 숨어있는 소도시가 세계규모의 시티세일즈에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경기장은 도시계획의 중요한 아이템

걸음을 멈추지않는 「경기장 선진국」에, 「그냥 경기시설」은 없었다. 시설된 것은 모두 「도시계획의 중요한 아이템이 되는 경기장」이었다.

좋은 경기장을 품으로 하는 클럽은 모두 다 정부와 양호한 관계며, 스포츠에 한하지 않는 공공적인 존재로서 지역에 인정받아, 경기장과 함께 지역에 더욱 정착. 지역경제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모습을 시찰할수 있었다.

J리그는 20년이 경과해, 경기레벨은 크게 비약했다. 클럽은 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가 될수있다고 가치도 인정받아왔다.

한편, 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중심시가지 공동화등 미래를 불안시하며, 「지역활성화의 핵」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장은 오늘 내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과제로 마주하며 「시의 미소가되는 경기장」으로 향해 않으면 안된다. (J리그 佐藤仁司)



테넨트의 스타벅스커피는 평일에도 북적,도시에서 가장 인기있는 만남장소가 됐다(더비/잉글랜드)



긴급시에는 피치로 피난할수 있는 법규에 의해 정해져있다.(스톡온트렌트/잉글랜드)



라운지 하나는 주말에 레스토랑이 돼, 지역 음식평점에서 3년연속 1위로 뽑혔다.(아스톤빌라/잉글랜드)

宮本恒靖 J리그 특임이사에 묻다

선수에게도 매력적인 리그를

J리그에 올시즌부터 만들어진 특임이사에, 전 J리그 선수인 宮本恒靖씨가 선임됐다. 새로운 필드에 한걸음 내걸은 宮本恒靖씨 인터뷰를 이번과 다음호에 걸쳐 전한다.

PROFILE

宮本恒靖(미야모토즈네야스) 1997년2월7일생. 오사카부 출신. 1995~2011년에 감바오사카, 빗셀코베에서 주로 DF로서 활약 (07~09년은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소속) J리그 337경기 출전 (8득점) 일본대표로서 71경기 출전(3득점) 02,06년 FIFA월드컵에서는 주장을 맡았다.

특임이사...공익사단법인 일본프로축구리그 정관 제21조2(특임이사)에 의하면,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며, 질의에 응할 수 있는 반면, 의결권은 없다.



기본적으로 선수 시선으로

-특임이사취임 타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宮本 선수로서는 경험과 시점을 J리그에 환원했으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저도 할수있다고 생각해, J리그 운영이라는 부분에도 조금 관련할수 있기에,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村井 満 체어맨과 이야기했습니다만

宮本 체어맨은 자신이 선수경험, 경기면에서는 프로가 아니기에, 부디 그런 것을 서포트해 줬으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수 시선으로 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의견을 말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宮本 하프타임 15분확보 도입을 정할때에는 선수로서 느낀 것을 말했습니다. 또 전날 차별적인 내용의 현수막에 대한 처분시에는 「클럽 전체가 반인종차별의 입장을 사회에 대해 발신해야한다」 「J리그,선수들이 차별적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하기에는, 쌍방이 협력, 제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등의 내용도 말했습니다.

- 「월간베스트골」 「코카콜라 J리그월간 MVP」 심사위원도 맡고있습니다. 이런 기획은 어떻습니까

宮本 선수의 동기로도 이어지고, 입장자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어필의 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굉장한 골이 J리그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저도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을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놀랄듯한 골, 아름다운 골은 일반인에게도 파급력이 있습니다.

-팬,서포터가 즐길 방법으로 어떻게 있을까요

宮本 순수히 많은 시합을 봤으면합니다. 그 중에서 누구의 플레이가 좋았는지, 어떤 골이 멋졌는지. 그런걸 비교하는 것도, 축구를 즐기는 하나가 아닐까요

-심사에 관해서도 선수로서의 경험을 살리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宮本 선수의 멋진 부분만을 짚아내는 것이 아니라, 팀전술 속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도 보려고 하면, 심사는 매우 어렵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보는 방법이 있고, 특히 MVP는 어렵습니다. 골이 기술적으로 어려운지, 임팩트가 있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장면은 DF가 좋지 않았는지, 반대로 보는 방법도 있다. 그것까지 말하면 길어지네요.

얼마나 우수한 선수를 배출하는가

-J리그는 개막후 20년이상 흘렀다. 그간 변천에서 느낀 것은

宮本 개막 후 얼마간 일본축구리그 시대의 분위기도 남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J리그를 둘러싼 환경, 관계자의 의식과 마인드, 선수의 수준향상은 물론, 관중의 눈도 높아지는등, 많이 변했습니다. 선수만이 아니라, 관계자의 프로의식, 매니지먼트력은 매우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비즈니스면은 어떻습니까

宮本 현재는 고생하고있는 것처럼도 보여 지지만, 다시한번 수입을 늘릴 방법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J리그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 인맥에 따라 변해갈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수의 수준향상은 해외로전으로 이어지고, J리그에 스타선수가 적어지고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宮本 최근에는 많은 일본인 선수가 유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활약할수 있도록 선수를 배출하는 리그로 계속있는지가 중요하며, 얼마나 우수한 선수를 키워나가는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카데미도 호판해, 지도자의 수준, 질 향상도 중요하며, 물론 아카데미 이외에서 성장하는 선수도 중요합니다.

-한편에는 베테랑이 된후 해외에서 돌아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宮本 그들이 경험한 것, 봐온 것을 얼마나 J리그의 발전, 선전으로 이어지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언젠가는 일본에 돌아오겠죠. 그때 판단기준으로서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해 J리그에서 뛰고싶다고 생각할수 있는 매력이 필요합니다. 팬,서포터와 마찬가지로 선수에게도 매력적인 리그를 계속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출판 안내]
「일본축구의 미래지도」
저자:宮本恒靖
발행:角川学芸出版BC
정가:1300円+税

